

자료 2024-02-23 / SINCE 1990~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펀드 판매회사 평가결과 A등급 획득, 은행권 1위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실시한 ‘2023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여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펀드 완전 판매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자체 미스터리쇼핑을 꾸준히 시행하는 등 고객의 자산 보호 및 올바른 투자권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은행 거래고객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는 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2천만원 장학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박종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상원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 소외된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선도조 건부 기소유에 청소년과 생계가 어려운 모범 청소년 등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끌어주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신관 새단장, 새 브랜드 30곳 입점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신관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키고 다채로운 프로모션으로 고객 발길을 사로잡는다.

이에 맞춰 지난 14일부터 신규 브랜드 특별 할인 혜택과 사은품 증정 등 풍성한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신관 지하 1층의 새로운 브랜드들이 입점하면서 영패션과 스포츠 브랜드 전문 매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고객들이 언제나 새롭고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 금호 정일택號, 전기차 타이어 총력



금호타이어 정일택 사장이 전기차용 타이어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전사적으로 총력을 다해 공급 확대와 국내외 매출 비중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정 사장은 올해를 전기차 타이어 시장 공략 원년 삼아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호타이어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고성능 전기차 보급이 빠른 진행 과정과 맞물려 있다.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가 전기차에 최적화된 드라이빙 퍼포먼스에도 초점을 맞춰

지고 있다. 전기차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에 비해 낮은 회전저항, 저소음, 높은 접지력과 내마모성 등 특성을 갖춰 미래 모빌리티의 척도가 되고 있기도 하다.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 광주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운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인 광주 관내 2만 5,000여개 사업장에 대진단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해 자체 진단 참여를 유도하고, 12개 전용회선을 마련, 전화상담(대표번호 1544-1133)과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도 제공한다.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우리 관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위험성평가 실시로 사업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병원

◆ 제34대 전남대병원장 취임 "미래형 스마트 병원 준비"



정신 제34대 전남대병원장은 14일 "미래형 스마트 새병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정 신임 병원장은 이날 전남대병원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본·분원별 특성·전문화 및 의료 질 향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과 미래 의사 과학자들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신 신임 병원장은 1993년 전남대병원 교수로 부임한 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교육연구실장, 기획실장, 진료처장, JCI추진 본부장, 제8대 화순전남대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전KPS

◆ 한전KPS-한전기술, 감사업무 교류·지원 협력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 KPS (사장 김홍연)와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 이하 한전기술)이 청렴활동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약서에는 △내부 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과 우수분야 정보 교류 △교차감사 등을 통한 감사기법, 반부패와 청렴문화 확산 등 정보 교류 △합동워크숍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용을 담았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부통제 우수 기관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비경수로형 4세대 소형모듈원전 개발한다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미국 기업과 손잡고 비경수로형 4세대 소형모듈원전 (SMR) 개발에 나선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한전KPS는 국내 혁신형 SMR 정비 연구개발 분야에도 협력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과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참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한전KPS는 SMR 분야 선두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SMR 플랜트 표준 운영과 유지 보수 절차는 물론, SMR 플

랜트 사업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KDN

◆ 국내 최초 '배전자동화시스템 단말장치' 정보보호인증 획득



한전KDN(사장 김장현)은국내 최초로 배전 계통 실시간 감시·제어에 관여하는 배전자동화시스템 단말장치(FRTU, Feeder Remote Terminal Unit)에 대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Basic 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라 IoT 제품의 정보보호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시험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IoT 보안인증제도다.

김장현 한전KDN 대표는"앞으로도 분산형전원 확대에 따른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연계장치의 개발과 후속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에너지ICT 전문기업으로서 국가기반시설 디지털 전환의 위협 요소인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38회 금요조찬 포럼>

새로운 우주시대가 열린다

(이명현 대표)

1638회 금요조찬포럼은 이명현 대표를 초청하여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린다」를 주제로 우주여행의 발전과정과 현재, 우주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이야기를 하였다.

1969년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50년 후에는 달나라로 수학여행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이 마지막으로 인간이 달에 착륙한 기록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것 중 몇 가지가 실현되면 그게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달에 착륙한 지 50년 이상이 흐른 지금 민간의 우주 상업 여행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1년 7월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실현됐습니다.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우주비행사 2명, 승객 6명을 태우고 최초의 우주 상업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가 설립한 블루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연이어 상업 우주여행을 시작합니다.

우주산업은 여행뿐만 아니라 원자재 채굴을 위한 연구되고 있습니다. 소행성에 착륙해서 굴착하고, 다시 지구로 가져오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소행성에서 원자재를 직접 캐내기 위해 설립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산업에 룩셈부르크 연기금이 투자하고, 뒤이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까지 투자 합니다.

이 기업은 현재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 채굴 산업은 석탄을 캐거나, 석유를 캐는 레거시 산업입니다. 채굴 산업은 오래된 산업인데 여기에 우주산업, 미래산업이라 명칭 하나까 세계의 인재들이 와서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남극, 북극이나, 화산 옆에서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우주를 지향점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만들었던 일회용 기저귀는 현재 아기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0가지 미래 중 실제 일어나는 미래는 10가지 정도 됩니다. 기업을 정

영하는 데 있어 지향점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현되기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습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발표 (2.13)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월 13일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 이제 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경총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과도한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실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 분석 자료를 작년 2회에 걸쳐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보고서는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국제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

① (우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기준1*>(실근로시간) 253만 명, <기준2>(평소 소정근로시간) 224만 명으로 각각 전체 임금근로자의 12.0%, 10.3% 수준

* OECD는 각 국가별로 평소 근로시간 기준 주당 50시간 이상,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을 발표하고 있으나, 한국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총은 활용가능한 통계 중 OECD 기준과 최대한 부합하는 통계청 통계로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을 추정 - 보고서의 분석 기준으로는 ① 'OECD가 취업자 통계에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근로시간' (기준1)과 ② 'OECD 공식 기준과 개념이 유사한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2)을 선정

⇒ 동 보고서의 분석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경총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 1p 참조

- 주당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는 <기준1> 67만 명, <기준2> 58만 명으로 각각 전체 임금근로자의 3.2%, 2.7% 수준

② (장시간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2022년 우리 임금근로자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OECD 공표평균(10.2%)과 비교해 <기준2>는 0.1%p 차이로 거의 비슷했으며, <기준1>은 1.8%p 높았음.

- 주당 60시간 이상 비중은 우리나라(기준1 3.2%, 기준2 2.7%)가 모두 OECD 평균(3.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③ (장시간 근로자 비중 추이 국제비교) 2002년에는 우리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 우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1/4~1/7 수준으로)하여 이제는 OECD 평균과 비슷해진 것으로 분석됨.

- 2002년* 우리나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47.9%(기준1), 42.6%(기준2)로 무려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50시간 이상 일했던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2002~2022

년OECD 평균이 2.1%p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15배 이상 크게 감소(<기준1> 35.9%p, <기준2> 32.3%p)하여2022년의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비중은 2002년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OECD가 회원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평균을 공표하고 있는 기간

- 2002년 우리나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2.1%(기준1), 20.0%(기준2)로 약 20% 가량의 임금근로자가 60시간 이상 일했던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2002~2022년 OECD 평균이 2.0%p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8배 이상 크게 감소(<기준1> 18.9%p, <기준2> 17.3%p)하여 2022년의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2년의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접수 (~2.23)

- 고용노동부는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여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접수(~2.23)
 - (대상) 개인(사용자, 근로자 등) 및 단체(사업장 등)
 - (포상내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참고사항) 포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공지사항)
 - 2024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안내) 참조

◆ KDI, 「2024년 경제전망(수정)」 발표 (2.14)

- KDI는 우리 경제가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면서 2024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2023년 11월 전망치(2.2%)와 동일
 - (소비) 2024년 민간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1.8%)보다 소폭 낮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투자) 2024년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과 유사하게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1.4%)는 부동산경기 하락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1.0%)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수출) 2024년 총수출은 반도체경기 반등과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반영하여 기존전망(3.8%)보다 높은 4.7% 증가할 전망(물량 기준)
 - ※ 상품수지 내 수출 금액 기준으로 2024년 수출은 전년대비 6.5% 증가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2.6%)보다 소폭 낮은 2.5%로 전망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기존 전망(2.4%)보다 낮은 2.3%로 예상
-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 회복세는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전망(430억 달러 내외)을 상회하는 560억달러 내외의 흑자로 전망
- 2024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21만명)과 유사한 22만명으로 예상
 ※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3.0%로 전망

◆ 기획재정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2.14)

- 기획재정부는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新성장 4.0 전략”을 발표
- 新성장 4.0 전략은 ①미래 기술 선제 확보로 신성장동력 확충, ②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변화로 연결, ③신산업 전략을 통해 전략분야 초격차·신격차 창출을 도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15대 프로젝트를 포함.

[참고] 신성장 4.0 전략

구 분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新기술) 미래 분야 개척	(新일상) Digital Everywhere	(新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도전과제	미래 기술 선제 확보로 신성장동력 확충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변화로 연결	신산업 전략을 통해 전략분야 초격차·신격차 창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모빌리티 ■ 독자적 우주탐사 ■ 양자 기술 ■ 미래의료 핵심기술 ■ 에너지 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삶 속의 디지털 ■ 차세대 물류 ■ 탄소중립도시 ■ 스마트 농어업 ■ 스마트 그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 No.1 달성 ■ 바이오 혁신 ■ K-컬처 융합 관광 ■ 한국의 디즈니 육성 ■ 빅딜 수주 릴레이
인프라 정비			
① R&D 체계 개편 ② 인재 양성 ③ 글로벌 협력 ④ 금융 지원 ⑤ 규제 혁신			

자료 : 기획재정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24. 2. 14)

◆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발표 (2.8)**

-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이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497.0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으로 집계.
- **(총세입)** 2023년 총세입은 497.0조원으로 예산대비 37.0조원 감소(2022년 총세입 573.9조원 대비 77.0조원 감소)
 -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1조원으로 예산대비 56.4조원 감소(2022년 국세수입 395.9조원대비 51.9조원 감소)
 - ※ 국세수입 344.1조원 중 법인세 수입은 80.4조원(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4%), 상속증여세 수입은 14.6조원(4.2%), 근로소득세 수입은 59.1조원(17.2%)

[2023년 회계연도 총세입 마감 현황(조원)]

		예산	결산	증감
총세입		534.0	497.0	△37.0
	국세수입	400.5	344.1	△56.4
	세외수입	133.5	152.9	19.4

주 : 예산은 추경 기준

- **(총세출)** 2023년 총세출은 490.4조원으로 전년대비 69.3조원 감소(2023년 예산현액 *540.0조원 대비 90.8% 집행)
 - * 예산현액(540.0조원) = 예산액(534.0조원)+전년도 이월액(3.9조원)+초과지출승인액 등

2. 노사 동향

◆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우선 논의 희망

-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2. 7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언급
 - ※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논의 의제로 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②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③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확정
- 이성희 차관은 사회적 대화의 우선 논의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꼽으며 근로시간의 유연성 보와 근로자 건강권의 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
- 또한, 이성희 차관은 노동계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다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

[참고] 경사노위 특별위원회 및 의제별 위원회 관련

구분	논의 의제
<특별 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의제별 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의제별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 당초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총선 상황 등이 사회적 대화 논의 속도 및 노사정 합의 도출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정부는 지난 1. 4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발표

◆ 고용부는 지역·업종 단위의 원·하청 상생 확산 방안 모색

- 고용부는 2. 1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협력업체 및 경상남도와의 함께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 ※ 고용부는 지난해 ① 조선업, ② 석유화학, ③ 자동차 산업에 이어 항공우주제조업의 원·하청간 상생 모델 구축
 - 항공우주제조업은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업종 전체 매출액 75%)됨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사, 전문가, 중앙정부에 더해 경상남도가 참여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

[참고]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구분	주요 내용
원청사	①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②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③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④ 공정거래 관계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협력업체	①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 ② 연구개발 투자 산성 향상 노력

-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선언식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 표명
 - 경사노위가 지난 2. 6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특별 위원회 및 의제별 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특별 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 상존